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3
Mar. 2022
Vol.10 No.03

통권 91호

- 선교지 소식
- 예배 반주자들 소개
- 코람데오 / EM / ICY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니카라과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원주민 사역을 펼치는 이필우 선교사(왼쪽)

‘니카라과 젊은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필우 · 이진경 부부

살롱! 설레는 마음으로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께 기도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140편을 묵상하면서 ‘악인들은 서로 만나서 악을 도모하지만, 결국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고 그 분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의 신비에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사역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미션스쿨

N.C.A는 많은 선생님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 개학이 2주 연기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공립학교들도 정상 개학을 하여 학생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남편 이필우 선교사가 코로나 후유증(호흡곤란)의 증상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탓에 수업 후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루 하루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니카라과는 코로나로 인한 큰 일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정부의 제재나 특별한 방안이 없기에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니카라과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 정부의 이런 무대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갈 피해를 줄이는 듯 합니다. <10면에 계속>

■ 밸리채플 소식

밸리채플 전면 대형 LED 스크린 설치

밸리채플 예배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스크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 3개 프로젝터로 성전 벽면과 스크린에 비췄던 노후된 방식 대신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 밝은 화면과 다양한 영상을 구현해 낼 수가 있게 된다. 130여개의 모니터를 연결해 가로 10미터, 세로4.5미터 크기의 스크린은 빠르면 부활주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된다.



■ 주안에 동아리 소식



■ 밸리안수집사회 일일 여행 밸리채플 안수집사회 회원들은 4월 2일 당일 코스로 요세미티 나들이를 다녀왔다. 새벽 5시 부터 주차장에 모여든 12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오붓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진한 세코이아 향의 피톤치드를 넉넉하게 맛보고 돌아왔다. 사진은 마리포사 그로브에 있는 그리즐리 세코이아로. 번개를 맞았어도 튼튼하게 살아있는 세계 최대의 수종이라고 한다.



■ 할배골프회 출신원 잔치

'주안에할배들' 골프회에 경사가 났다. 지난 2월22일 놀우드컨트리클럽에서 이각균 집사(사진 앞쪽 왼편)가 출신원을 한 것, 157야드6번홀에서 멋지게 날린 아이언 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갔다. 이에 모든 회원들이 모여 축하잔치를 벌이고 기념패를 만들어 증정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에코클럽 금요하이킹

팬데믹이 점차 물러나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에 맞춰 에코하이킹 클럽도 기지개를 켜고 다시 정기산행을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 새벽예배가 끝난 후 밸리채플에서 가까운 Placerita Cyn, Rocky Peak trail을 비롯 워터맨마운틴 등 앤젤레스 국유림 지역내 아름다운 코스들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 몸도 튼튼, 친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본다고... <문의 조용대 장로 (323) 810-9853>

■ OC채플 이전 5개월

활발한 목장모임 · 한마음 기도로 부흥의 바람



작년 11월에 부에나파에서 플러튼 지역으로 이전한 OC 채플이 이제 안정되어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OC 채플의 특징은 교인들 중 1/3이상 분들이 마치 복숭아 열매의 과육에 둘러싸인 씨처럼 잘 결집되고 동질성을 가지고 단단하게 뭉쳐 있다. 이분들은 교회나 채플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단번에 짝 모여 해치우고, ‘기도합시다’ 하면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도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 한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런 교우들이 있어서 Downey 지역에 창립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여러 일을 극복하며 채플이 굳건히 이어가게 된 저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된다.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며 소개 한다.

지난 11월 100여명 정도의 출석 교인들로 시작된 OC 채플이 지금 평균 200명 이상(주일 학생 포함) 매주 출석한다고 예배국장님이 알려 주신다. 가까운 장래에 300명, 500명으로 부흥될 것을 확신 한다고.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여겨졌던 오후 1시 예배 시간이 장점이 되어 청년들과 영 커플이 30~40명이 매주 모인다. 또한 수요일에는 신학생들이 다수 모여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으며 배운 다고 들었다.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

운데 부흥 발전 하는 OC채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래 머무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린다.

예배 후에는 각 목장 모임이 활발한데 그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리뷰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위한 생각들을 서로 나눌 때 간식도 함께 나누며 친교를 다진다. 그중 특기할 일은 드림 목장에 98세 되신 원 군자 권사님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 하시는데 청력과 시력이 좋아서 말씀도 잘 하시고 웃기도 잘 하는데 최근 90세 되는 권사님 한분이 또 오셔서 드림목장의 젊은 노인(?)들을 기쁘게 했다고 한다.

| 나형철 기자 |

■ 벨리채플 17목장 봄소풍 기차여행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컴퓨터와 인공지능까지 정말 숨가쁘게 쫓아가도 이해하기 힘들고 뒤쳐지는 모습이 들킬새라 전전긍긍 하며 살아오던 권사님들의 첫 봄 나들이였다. 세상에 마음 빼앗길까 주일 성수 하느라 마음 편히 여행한 번 제대로 계획 해 보지 못하며 "산상수훈"의 팔복을 공부하던 중 다녀온 기차여행은 어릴적 첫 봄소풍 가는 날과

견줄만한 설렘을 안고 출발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한마디씩 소감을 부탁드렸다.

*한영자 권사: 40년 이민생활의 서러움을 바닷 바람에 날려버리고 온 듯. *김옥진 집사: 여고 시절 수학여행을 떠올리게하는 즐거운 시간. *전성희 권사: 팬데믹으로 2년의 은둔생활에서 기지개를 펴고 나온듯. *배영희 권사 : 하하호호 깔깔 모두가 동심으로. *장재희 권사: 밀려 오고 다시 밀려 가는 파도와 벗삼아 모래사장을 거닐며 삶에서 쌓여왔던 덕지들을 털어버리고 돌아 온 듯. *권금자 권사: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목원들의 추억 쌓기 일환으로 계획했고, 무엇보다 탈없이 안전하게 인도 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열려와 함께 기억에 남을 한끼 점심식사를 위해 며칠 전부터 기도하며 답사까지 다녀오는 목자, 이복희 권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은 우리가 배우고 본 받아야 할 리더로서의 덕목이 아닐까 싶다.

| 김선희 기자 |

■ 이달의 독서모임

기도의 응답과 깨달음

코람데오(한어청년부)가 지난 2월 27일에 이어 3월 27일 주일 예배 후 OC 채플에서 '주안에 Book을 Book을'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독서 모임을 가졌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한 코람데오의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리였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중하게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코람데오 청년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독서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의 소감이다.

김영진 성도: 독서토론회를 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노력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구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성배 성도: 독서토론을 하면서 각자 그동안 기도해왔던 제목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목들을 이루어주셨는지, 혹은 그 기도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

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즉각적으로, 즉시 응답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점마저 가장 좋을 때를 아시기에 그 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 느꼈습니다.

최일환 성도: 독서토론이라고 해서 무거운 자리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과 가볍게 이런 저런 의견을 나누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자리였고,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기도회 / 기타행사

코람데오(한어청년부)는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함께 토요 새벽예배를 드린 후, 청년부실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3월 5일에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르므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말씀을 붙잡고, 청년부를 위한 여러 기도제목들과 몸이 아픈 청년들/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 교회에 온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됨을 경험하였다.

은혜가 가득했던 기도회를 마친 후, 정인남 형제의 집에서 바베큐 파티와 게임을 하며 친목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3월 13일 주일에는 OC채플에서 '주안에새순' 말씀을 다같이 듣고, 양하민 자매의 집에서 교제하고 말씀에서 깨닫고 은혜받은 것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금년을 시작하며 코람데오에 영적,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모이기를 힘쓰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쫓아내며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한다.



OC 채플 김영기 장로

‘사랑과 기쁨으로 청년들의 발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찾아 소개할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는 일이 많다. 오늘의 주인공 김영기 장로 사연도 예외는 아니다. 특별히 교회 신문에 소개되는 것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많이 사양한 김영기 장로 의중을 배려하고 또 독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더하기에 적합한 어휘를 선정하기에 고심하였다. 김 영기 장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OC채플 EM청

목장에 속하는 연령인 김영기 장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청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한다고 한다.

김영기 장로 가정은 원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부인 김영희 권사가 뇌출혈로 투병하였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쾌차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가족이 결정을 하고 따님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로 이주하고 주안에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김영기 장로는 Fullerton Chapel, MP Chapel, OC Chapel을 거치는 동안 교회의 조경관리, 잔디 및 수목 관리 등 채플의 여러 분야에 많은 봉사에 힘쓰고 있다. 평소 교회 일을 할 때 교역자나 유관



년들이 밸리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매 주일 오전 8시에 OC채플에서 밸리채플까지 그들에게 Ride를 주고 있다. 왕복 101마일을 운전해야 하는데 교통 흐름이 좋을 때는 2시간 반, 복잡할 때는 3시간이 소요되는데 아마도 금년 말까지는 계속하리라 한다. 내년부터는 드림

직분 담당한 분들이 협조나 역할을 부탁 할 경우 김 장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은혜롭고 놀라운 말을 하였다. 우리 대부분이 참고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로 여겨진다. | 나형철 기자 |

'장로님 희생과 헌신 감사'

매주 밸리채플로 예배드리러 가는 EM 청년들 중 2명의 간증을 소개한다.

Justin Park

평소 내가 좋아하는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내 신앙에 새로운 계시를 받으며 그것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 기쁩니다. 또 내가

Valley ICY 교사로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지금까지 먼 거리를 운전해 주시는 김영기 장로님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Jane Lee

솔직히 말씀드려 매주 일요일과 금요일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밸리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밸리로 가는 일은 편안해지고 싶은 나의 욕망이 그때마다 날 부르시는 하

나님의 뜻과 다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겪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기 위해 왜 그 먼 곳까지 가느냐고 내게 묻는데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내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주께서 부르신 이 주안에교회에서 내 온 맘 다해 주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Ride를 주시는 김영기 장로님과 금요일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ICY 피크닉

‘얼마만이야...’ 마스크 벗고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

3월 19일 토요일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교회 근처 공원에서 ICY 중고등부 학생들이 피크닉을 가졌다.

60여명의 학생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농구도 하고 게임 및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해 주신 햄버거, 핫도그를 먹으며, 교회가 아닌 야



외에서 보내는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모인 학부모님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 교제를 한 것이 공식적으로는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학생들,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체하는 것 역시도 조심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함께 모여 웃고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 EM 리더들,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역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류명수 기자 |

■ Letter from Missionary

Gifts of Sweet-Smelling Sacrifice for Kingdom Expansion

Dear Brothers and sisters from in Christ Community Church, time goes so fast, I want to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for our church and my family, With your support it has been possible for gifts distribution for children's and adults during Christmas, also with the support has been possible to finish the bathrooms and possible to buy food for the families during the difficult times, and food to take to the men and women at the rehab center,

Also I like to thank you so much for the 12 passenger van that you have donated for our church, it has been a



blessing, we use it Wednesday evening and Sunday morning to go to church 9 people from our place to Colonet Church and also Saturday evening for youth bible study, it works perfect for us because the other Church van the hidrobooster cylinder it has been damaged.

Vizcaino south Baja Trip was great with ICC team and our church member serving the Lord Together



was a blessing hope we can go back, there are so much need not only physical need most important spiritual need.

We also miss fellowship with you all hope you can visit us and serve the Lord together.

Thank you for partner with us and for work together for the His kingdom and his ministry you are part of what the Lord is doing in Colonet Church and ministry, The Lord Bless Pastor Choi ICC Church and church members The Lord Bless your big heart

Under His Grace, Rudy Lopez

Let's plan for Train Trip #2!



Alllllll Aboard! What a wonderful day we spent as a family in Christ on a fantastic train adventure. First off, I wanna give all the thanks to God, keeping us safe and perfectly on-time to enjoy a trouble-free ride to and from San Juan Capistrano. And hey, it ain't a true adventure without breakin' from the plan, and what a little gem the town turned out to be! The mission was serenely beautiful, and boy was it fun snapping pics and capturing priceless memories. And the food: call me controversial, but Chicago pizza really does give New York pizza a run for its money. Next stop: the beach!

| Paul Yang |



All-Star Game: EM vs. ICY



Talk about buzzer beaters! From beautifully elegant lay-ups to dagger 3s, the ICY/EM Basketball Tournament was as action-packed as any All-Star game. Huge shout-out to Leah Chang for MCing and refereeing the games, she's the real MVP, as well as to everyone for showing amazing, Christ-like sportsmanship throughout the entire event. The fellowship was matched only by the delicious food kindly prepared by PSG. I think we're going to see The Decision Part II, with LeBron joining the ICY/EM team for one last championship run (Lord knows, the Lakers sure aren't getting him there).

| Paul Yang |

■ 예배 반주자

“섬김의 자리, 온전한 마음의 예배자 되기를…”

주안예교회의 벨리채플과 OC 채플의 주일 찬양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4명의 반주자들과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고, 반주자로 헌신을 결심하게 된 동기와 헌신하면서 받은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제목이나 소원을 들어봤다.



◀ 송명진
〈벨리 금요일예배〉

처음 반주자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스스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긴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저를 다시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준비되지 못한 부끄러움과 부담스러운 마음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으로 거절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섬김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권면 하심에 필요

로 하시는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단순히 옳다는 생각이 들어 순종하고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보니 최혁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로마서 강해”를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지만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매주 성전에 나아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지나는 시간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을 채우고 싶으셨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가까워 짐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니 모든 것에 있어 저의 생각

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갈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된 저의 섬김 중의 이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한 기쁨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저의 삶에 더욱 풍성히 부으시고 채워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반주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인 것과 같이, 삶 전부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온전한 마음이 드러지는 예배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 김영애
〈벨리 주일1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반주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시어 또다시 저를 반주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욱 더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멀리만 계신 하나님 같았는데 찬양으로 헌신하며 더



고난주간을 맞으며...

고난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로부터,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부활 주일 직전까지의 절기를 가리키며,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리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일컫는다. 금년에는 4월

10 일 부터 4월 16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며,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응축적으로 담겨있는 이 한 주간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엄숙하게 보내야 할 절기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의로운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구속주가 당하신 우주적 고난 이었다는 사실이다.

헌신의 자리, 익숙함보다 하나님 더욱 의지”

욱더 절실해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에 기쁨을 주며 하나님을 만난 제가 찬양 연주를 통해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김지희 ▶

〈벨리 주일2부〉

몇 년 전, 장학금 수여식 때 건반 반주를 부탁받은 후로 부터 주일 찬양팀을

섬기게 되었는데, 제게 있는 조그마한 달란트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건반 반주자로 헌신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특별한 은혜는 주일날 하는 찬양을 미리 듣고, 묵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리 콘티를 받고, 곡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드릴 때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주일도 있었는데, 은혜는 찬양으로부터 먼저 흘러가야 하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날이 더하여질수록 헌신의 자리에서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더 구하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매순간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안에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면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성도님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가운데 저의 부족한 반주로 인해 방해가 될까봐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키보드로



김지혜 ▶

〈OC 주일예배〉

섬기면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절대 망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사용하시고 저의 부족함과 실수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주로 섬기는 시간들 뿐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적 예민함이 생기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복 받는 귀한 자리임을 느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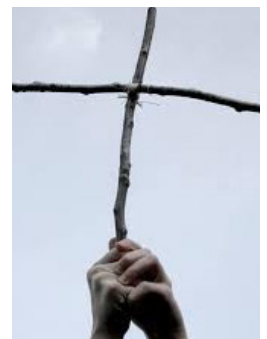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이라는 소망을 예비해 두셨던 놀라운 그분의 사랑앞에 우리는 무능하기만 한 채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 사실만으로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전염병으로 인한 약 2년 반의 불편했던 시간을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하곤 한다.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편함,

즉 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고난을 언급하지 않았던가? 고난이란, 주님을 위한 연단이며 훈련과정이라고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까지의 깨지지 않는 자기중심의 신앙의 벽을 깨고, 더 이상 고생이 아닌 고난을, 사연이 아닌 간증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간구하는 시간으로 남겨두는건 어떨까 싶다.

| 오희경 기자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니카라과



정글속 원주민 부족을 찾아서

〈1면서 계속〉 지난 11월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부 정선거로 재 당선 되면서 독재체제의 연장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반정부 세력 관련인들을 아직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거나, 가택 연금시켜 감시하고 있고, 국립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교 허가를 취소하여 대학교의 문들이 닫히게 되는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학교 내 직원들을 친 정부 측의(F.S.N.L) 사람들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에 있었던 정부에 반대하는 데모사태의 주동자들이 대학생들이었기에 대학교 내에 감시단을 심어 놓는 일이라고 현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젊은 학생들의 비전과 희망이 독재정권의 영향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학생들을 섬기는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 믿어집니다. 이때에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중,남미에서는 부활절 주간을 Semana Santa(세마나 산타)라 부르며 연중 가장 큰 휴일을 보냅니다. 이 기간에 미스끼또 부족이 살고 있는 Lapan이라는 정글지역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복음 전파와 예배당 건축입니다. 선교사님 한, 두 분이 함께 가길 원하시고 현지인 동역자도 팀을 이루어 갈 예정입니다. 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동남아국(이선진·정영희)



'더 머물면 못떠날 풍요한 고국'

살롱!!!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한국에서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며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감사한지요. 15년 만에 느껴보는 매서운 추위와 기억 속에 있던 한국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한국땅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추위를 느껴보고 처음으로 하얀 눈을 만져보며 말로만 듣던 겨울의 차가움과 영상으로만 보았던 함박눈을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한국의 음식들도 먹고 같은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보고싶고 그리웠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건강검진도 받고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고 힘차게 찬양을 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과 경치 그리고 바다를 보며...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출국일을 연기했지만 그 시간동안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부족했던 비자 연장 비용들이 채워지고 부모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시간들로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더 머물렀으면 캄보디아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한국은 풍요롭고 정말 살기좋은 나라.. 우리의 조국 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오며 언제 다시 또 이곳에 올 수 있을까? 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저희의 또 다른 고향인 C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목장모임/ 벨리 1목장



벨리채플 1목장(목자 공태용 안수집사, 공수옥 권사) 모임이 지난 3월 20일 시미벨리 이진주 집사택에서 열렸다.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었던 목원 가정에서 오랜만에 만나 쌓였던 정담을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만찬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사역자 소개/ 조선희 전도사

'부르심에 순종, 약속의 말씀 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주 안에 교회 교육부 IC LOVE, IC HAPPY, IC JOY를 섬기고 있는 조선희 전도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에 소망없음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소망없는 세상을 방황하다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셨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사역자의 길을 가고싶도록 결단하게 했고, 학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말씀 안에서 나의 실체를 발견할 때마다 사역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사역은 나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며 당신의 뜻에 합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저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주신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약속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깊이 깊이 깨달으며 내가 세상에서 구할 오직 한가지는 삼위 하나님 그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의 소망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분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누구와 있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출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섬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새가족/ Vicky Kwak

진리의 말씀,
깨닫는 은혜

안녕하세요. 새신자 Vicky Kwak입니다.



항상 마음은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했지만 세상 것에 집중하느라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저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양의 소리를 가까이 할수 있게 도와주신 Janice Huh 권사님을 포함한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다시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신 금요예배는 너무 은혜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광야와 사막일지라도 그 길의 선함을 믿어 의심치 않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씀에 너무 은혜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나의 문제해결과 소원성취만을 위해 세상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과 찬양을 항상 가까이 하겠습니다.

■ 유아세례/ 윤서아

'서아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둘째 아이인 서아가 지난 2월 주안에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준비과정부터 유아세례 당일 까지 도와주신 손길이 너무 많았고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단순히 부모 두 사람이 유아세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주안에교회 교인 전부가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였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로서 어느 순간은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 아이들을 부모의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유아세례를 통해 하나

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맞추어 우리 자녀의 신앙이 시작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역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서아가 성장하는 동안 이 교회에서 입교도 하고 청년이 돼서 사역에도 동참하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 하나하나 지켜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하권/이다이 집사 |

■ 음악 칼럼/ '주님께 영광'

헨델의 오라토리오 멜로디 부활절 애창곡으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로 시작하는 찬송가 165장(통155) '주님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곡으로, 부활절에 애창되는 찬송가이다. 이 찬송가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Judas Maccabaeus」에 나오는 곡의 멜로디를 사용하여 작곡되었다. ('오라토리오'란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극음악인데 무대장치, 의상, 연기가 없다는 면에서 오페라와 차이가 있다.)

이 오라토리오는 셀루시드 제국(현 시리아)의 압제에 맞서 승리를 쟁취한 유대민족의 영웅 Judas Maccabaeus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 유대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기 시작한 셀루시드 왕조는, 성전을 부수고 다른 신을 섬기라 강요하며 유대인들의 신앙을 파괴하려 한다. 이에 노제사장 Mattathias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 저항했다. 뜻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Judas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군중에게 설교하여 외세에 굴복하려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오라토리오의 3부에 승리 후 개선하는 Judas Maccabaeus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See! the Conqu'ring Hero Comes! (보아라! 용사가 돌아온다!)'라는 군중들의 합창이 나오는데, 이 곡이 찬송가의 선율로 사용되었다. 이 합창곡은 오라토리오 「Judas Maccabaeus」 초연 시에는 연주되지 않았던 곡이다. 이 곡은 원래 헨델의 다른 오라토리오 「Joshua」에 포함되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



게 되었는데, 이에 고무된 헨델은 「Judas Maccabaeus」에도 이 곡을 포함시켜 개정했고, 결과적으로 두 개의 다른 오라토리오에 동일한 곡이 수록되었다. 베토벤은 이 합창곡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토대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변주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1884년 스위스의 에드몽 루이 버드리 목사는 이 합창곡의 멜로디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 À toi la gloire, Ô Ressuscité(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찬송가로 사용하였다. 이 찬송가는 1896년 리처드 호일 목사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고, 2년 후 Thine Be the Glory(주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기독교 학생 연합회의 찬송가집에 수록된 후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 황성남 기자 |



■ 벨리채플 19목장

할머니, 손자 등 3대가 기차여행

Metro 오렌지 라인을 타고 San Clemente Pier 로 19목장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세부터 75세까지 26명, 세대차이 없이 전 가족 참여했습니다. 구름긴 하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 쐬며, 즐거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애'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인애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선희,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유영애, 이예스더, 이혜윤,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